Migration Research & Training Centre
이민정책연구원
Partner Organization of IOM
MRTC

외국인 고용이 우리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까?

분석대상

2015-2022년 외국인을 고용한 4,341개 중소제조업체

활용자료 외국인 고용의 사업체 생산성 효과와 제고 방안 연구



연구목적 / 분석배경

고령화와 **인구감소**로 갈수록 심해지는 인력난 속에서
중소제조업체의 **외국인 의존도**가 높아지고 있어요

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체들의 생산성은
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?

실증분석 결과로 살펴봅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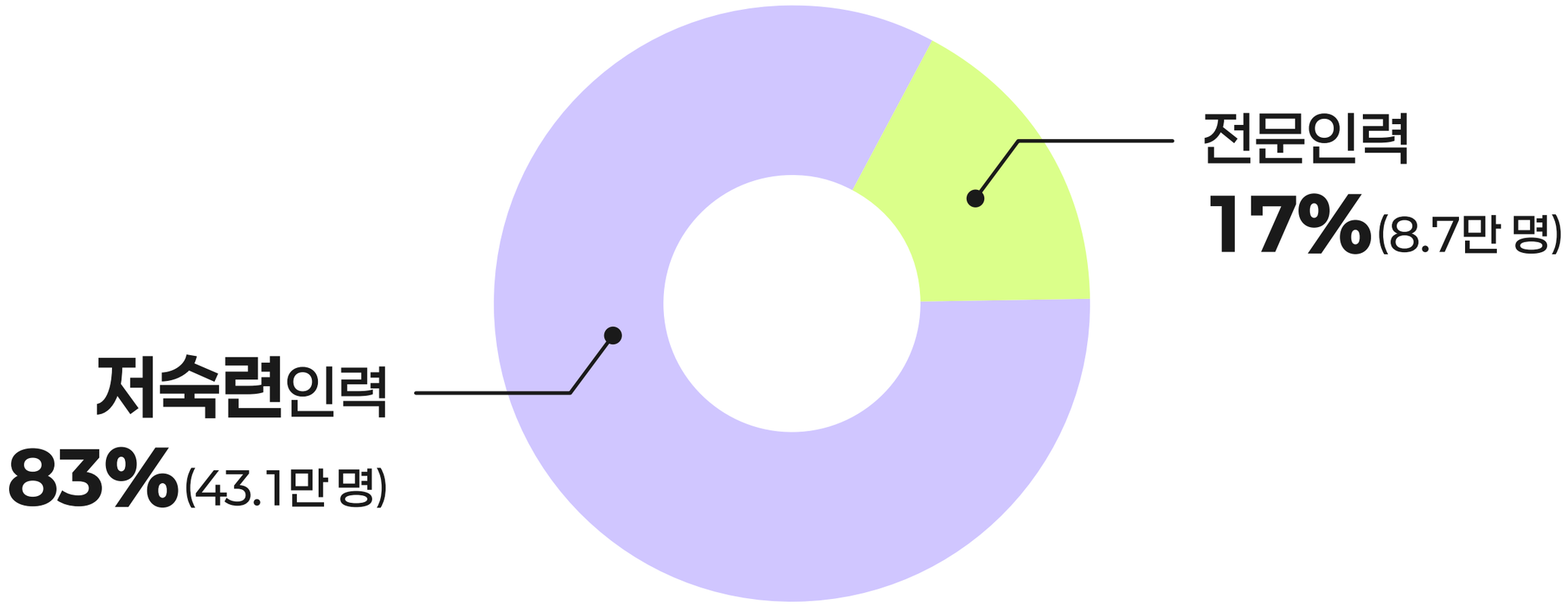


취업자격 외국인의 대다수는

저숙련 인력

- 2024년 기준 국내 취업자격 체류외국인은 51.8만 명
- 이 중 전문인력(E-1~E-7)의 비중은 17%(8.7만 명)
- 저숙련 인력(E-9, H-2)는 전체의 약 83%(43.1만 명)를 차지하며 노동시장의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.

*단기취업(C-4)와 계절근로(E-8), 선원취업(E-10)은 제외



자료: 법무부,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

실증분석①

외국인 고용이 생산에 미친 영향

- 외국인 고용 확대가 사업체의 전체 생산(부가가치)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매우 작거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- 한국인 고용은 외국인보다 생산에 더 큰 기여를 할 가능성이 있으나, 통계적 유의성은 낮게 관측되었습니다.
- 외국인 고용의 목적 : 사업체는 생산성 향상보다는 당장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.

	생산(부가가치)
외국인 고용 확대	**0.074**(통계적 유의x) (0.089)
한국인 고용 확대	**0.562**(통계적 유의x) (0.436)

실증분석②

내 일자리를 뺏길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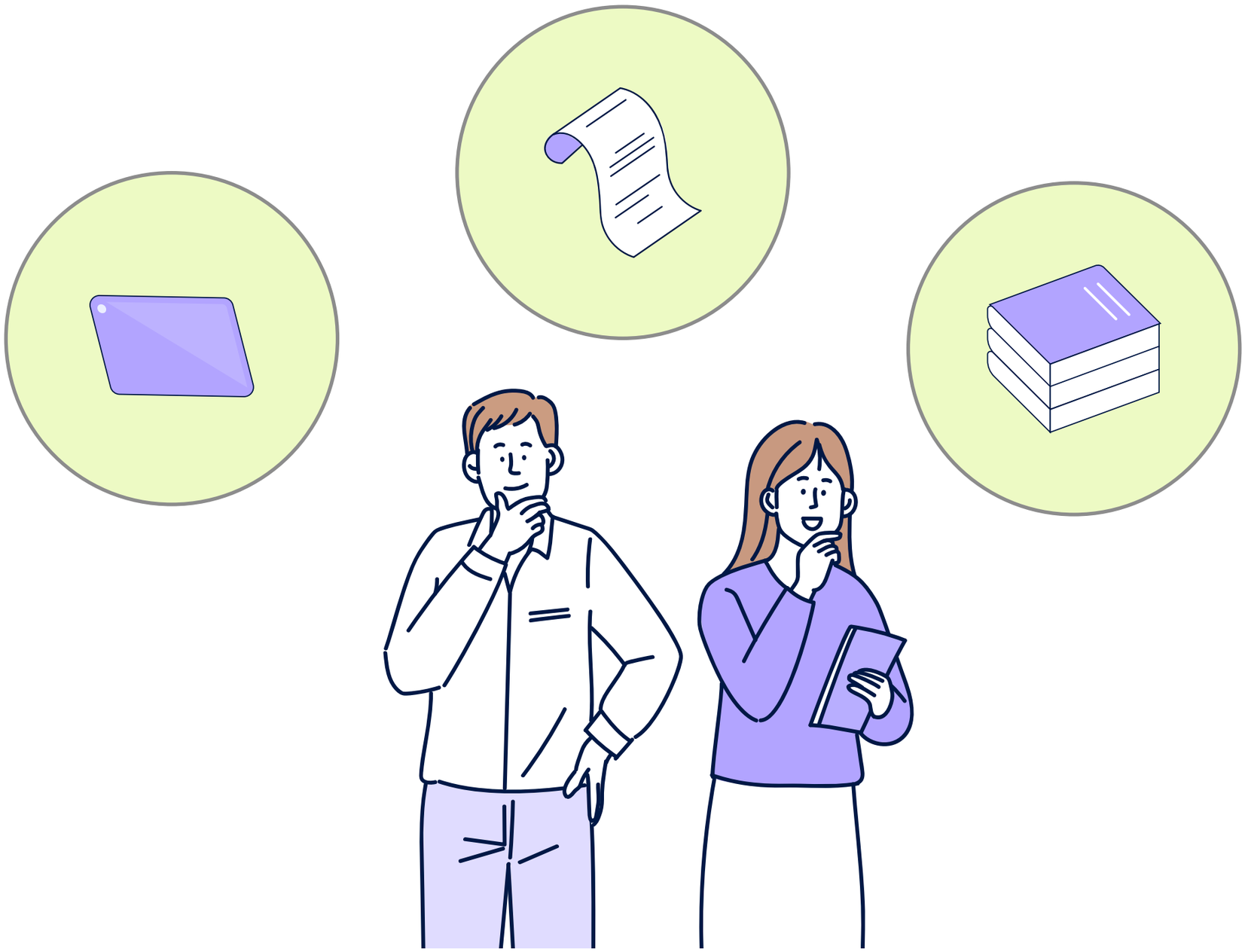
- 외국인 고용이 늘어난다고 해서 한국인의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유의미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

- 상호 보완적인 관계 : 외국인과 한국인은 서로 경쟁하기보다 한국인이 기피하는 직무를 채우는 보완적 관계에 가깝습니다.

	한국인 고용
외국인 고용 확대	**0.030**(통계적 유의x) (0.027)

노동생산성은 변화할까?

외국인근로자의 비중이나 사업체 규모가 변하더라도 평균적인
노동생산성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.



총요소생산성(TFP)에 미치는 효과

- 작지만 유의미한 성장 : 외국인 고용이 1% 증가할 때 사업체의 TFP는 약 0.03% 유의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- 한국인 고용의 TFP 상승 효과(0.36%)가 외국인보다 크지만, 인원수 차이를 고려하면 기여도는 유사한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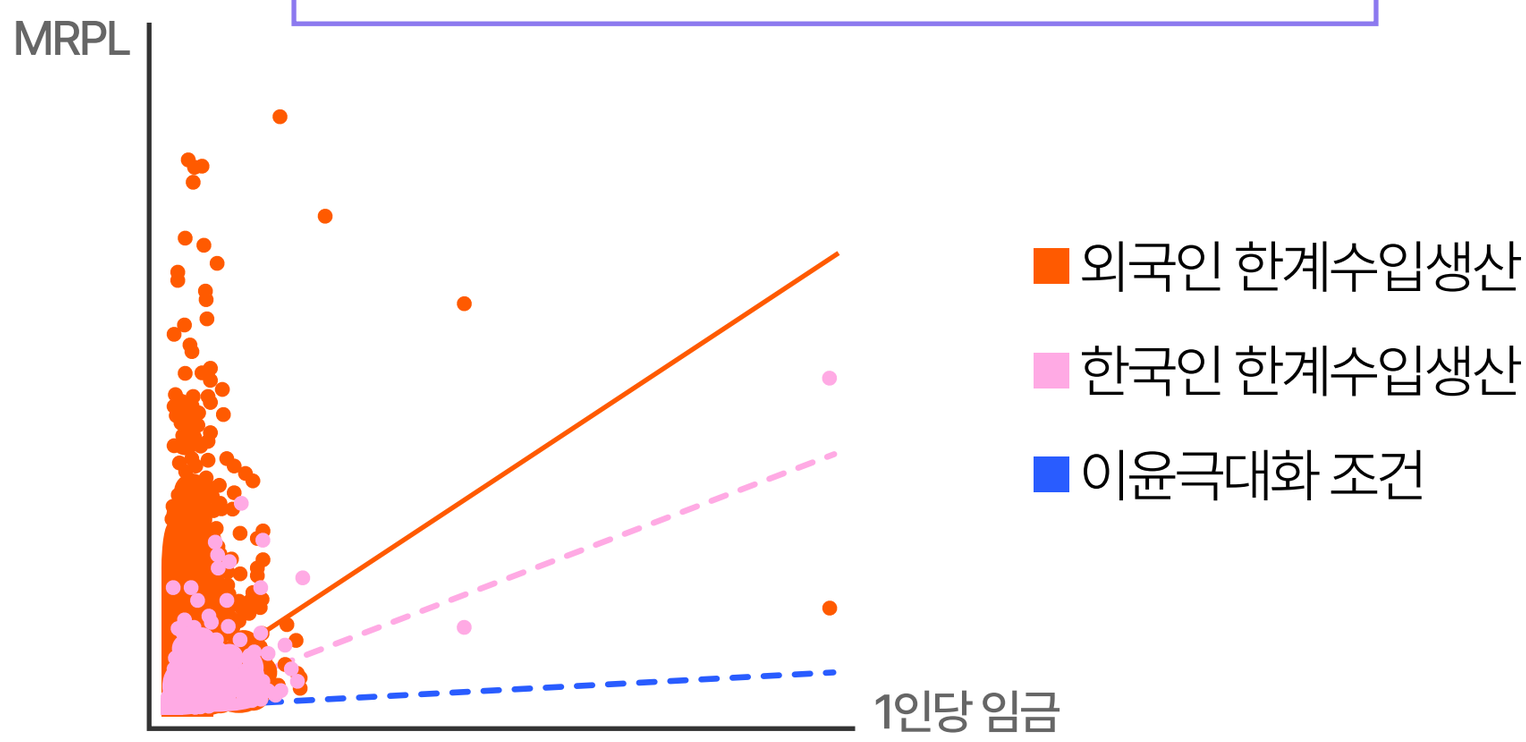
	TFP
외국인 고용 확대	**0.032** (0.015)
한국인 고용 확대	**0.362** (0.086)

기업은 이윤을 남기고 있는가?

- 합리적 선택 : 대부분의 사업체는 이윤극대화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.

- 즉, 추가 고용한 외국인근로자 1명이 창출하는 수입이 지불하는 임금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의미입니다.

노동의 한계수입생산과 1인당 임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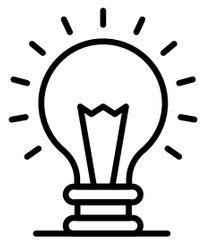


미래를 위한 정책 과제 '양'에서 '질'로



저숙련 인력의 숙련화 →

교육 훈련



숙련 인력의 정주화 →

인적자본 유출 방지



인적자본 관리를 위한

체계적 데이터 구축 필요

더 자세한 내용은

이민정책연구원 홈페이지>발간물>연구보고서에 게시된

연구보고서를 참고해주세요!



외국인 고용의 사업체 생산성 효과와 제고 방안 연구

(김형진, 소준영)

카드뉴스 기획 및 제작: 이민데이터센터(02-3788-8041, 8039)